산업통상자원부	**보도참고자료**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배포 즉시	배포 일시	2022. 12. 30.(금)

담당 부서 (총괄)	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	책임자	과 장	이승헌 (044-203-5650)
		담당자	사무관	권태성 (044-203-5654)

美 재무부, IRA 상업용차 세액공제 가이던스 발표
우리 정부 요구 반영 : 리스·렌트 차량도 7,500불 세액공제 대상

❶ 우리 정부는 연내 상업용차 가이던스 발표를 지속 요구

❷ 상업용 차량 판매의 경우 한국산 차량도 7,500불 혜택 전망

❸ 핵심광물·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방향 관련, ▲전체 가치기준 계산, ▲부품 정의 등 우리 정부·업계 의견 상당부분 반영

❹ 내년 3월 핵심광물·배터리 부품 잠정 가이던스 발표 시까지 美와 지속 협의하여 우리 기업 부담 최소화·수혜 최대화 지원

□ 정부는 30일 새벽 1시(한국시간) 美 재무부가 **❶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가이던스(FAQ 포함), ❷핵심광물·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제정방향, ❸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정의(최종조립, 북미 등) 방향** 등을 **발표**했다고 밝혔다.

○ 당초 지난 19일 美 재무부는 연말까지 발표하도록 되어있는 “핵심광물·배터리 부품 가이던스” 발표를 3월로 연기하며, 별도로 연말까지 가이던스 제정방향을 배포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.

○ 이에, “핵심광물·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제정방향” 발표는 예측 되었으나, 법령상 배포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**“상용차 세액공제 가이던스”**는 **우리 정부가 연내 발표**를 **지속적**으로 **요구한 바 있다 .**

○ 그 간 한·미는 여러 채널을 통해 협의해 왔는바, **금번 상업용 전기차 가이던스 발표**는 **美 행정부가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차별적 상황을 완화**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**평가**된다.

□ 이번 가이던스 발표를 통해 상업용 차량에 리스판매 차량이 포함됨에 따라 **우리 자동차 업계도 상업용 차량 판매**를 통해 **미국에서 7,500불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.**

○ **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**는 ❶차량 가격의 30% 또는 ❷유사 내연기관차와의 가격 차이(증분비용, incremental cost) 중 **더 적은 금액**으로 **최대 7,500불의 세액공제 혜택**이 **적용** 된다.

○ 美 에너지부에 따르면 증분비용은 대부분 **7,500불 이상***이고 **차량 가격**의 **30%** 또한 **7,500불** 넘기기 때문에, **상업용 차량은 대부분 세액공제 혜택**의 **최대치인 7,500불의 혜택**을 볼 것으로 **전망된다.**

< 美 에너지부에서 발표한 차종별 증분비용(incremental cost) >

차량 크기	순수전기차(BEV)	플러그인하이브리드(PHEV)	수소차(FCEV)
컴팩트카	$7,500	$7,000	$11,000
중형차	$8,500	$8,000	$15,000
중형SUV	$14,000	$9,500	$19,000
픽업트럭	$19,500	$14,000	$35,500

* 다만, ▲차량수명의 80~90% 이상의 장기리스, ▲리스계약 만기 시점의 할인구매 옵션 ▲차량 소유에 따른 리스크를 구매자에게 이전 등은 판매 목적으로 간주되어 세액공제 未적용

□ 한편, 美 재무부는 '23년 3월 배터리 부품 및 핵심광물 요건 가이던스 발표에 앞서, **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가이던스 제정방향을 백서 형태로 배포**하였다.

○ 배터리 부품별 북미 제조·조립 비율, 핵심광물별 미국 및 FTA 체결국에서 추출·가공된 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, 개별 부품·광물이 아니라 **전체 부품·광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**토록 하였고,

○ 미국과 FTA 未 체결국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, **FTA 체결국에서 가공하여 50%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FTA 체결국 産 으로 간주**하기로 하였다.

○ 또한, **배터리 부품의 정의**에 **음극판, 양극판, 분리막, 전해질, 배터리 셀, 모듈 등이 모두 포함될 전망**이다.

□ **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**은 “우리 정부는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차례에 걸쳐 美 재무부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고, 각계 각급에서 美측과 수차례 협의를 갖는 등 **우리 기업의 부담 최소화, 수혜 극대화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.**”고 밝히며,

○ “**우리 업계가 IRA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**하고 **능동적으로 대응**할 수 있도록 **정부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지원**하겠다”고 강조했다.

□ 한편, **자동차, 배터리 업계 등**은 **전반적으로 이번 미국의 발표를 환영하며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립하**고 있다.

○ **현대차의** 경우 경쟁력 있는 리스료 책정을 통해 **기존 3~5% 수준의 상업용 판매 비중을 30%대로 확대**한다는 계획이고,

○ **배터리 업계**의 경우 **정부의 적극적 노력**으로 **업계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**되었다고 **평가**하며, **이번 발표 내용을 심도있게 분석**하여 **향후 대응방안을 준비**해나가겠다고 밝혔다.

□ 정부는 미 재무부의 3월 핵심광물·배터리 부품 잠정 가이던스 발표시까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	책임자	과 장 이승헌 (044-203-5650)
		담당자	사무관 윤경민 (044-203-5652)
		담당자	사무관 권태성 (044-203-5654)
	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봉준 (044-215-7670)
		담당자	사무관 김상형 (044-215-7671)
	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북미유럽경제외교과	책임자	과 장 김혜연 (02-2100-7684)
		담당자	서기관 전 현 (02-2100-7698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